

1965

성도의 벗

159



9

목 차

예언자의 말씀	1
나는 그분의 선교사였다.....	2
한국 성도들에게.....	11
조셉 윌딩 스미스 12사도 정원희 회장 멧세이지 ...	13
한국 지방대회 성황리에 끝나다.....	13
신임 선교부장 가족 내한.....	14
여러분의 질문.....	15
환영사.....	18
한 나무토 숲을 이룰 수 없다.....	21
상호부조회 공과	
신학	24
방문교사 멧세이지.....	27
봉사의 도입.....	30
문학.....	37
1965년 7월 칙례자 명단.....	40



여러분과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갖는 훌륭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도범을 보이는 책임과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을 도와 주실 것이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모든 나라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빌립보서 3: 13)

나는 그분의 선교사였다.

—사도 바울에 관하여—

한국 선교부장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하여야 할런지? 나는 두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두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라 한다. 얼마나 그들은 틀린 것인가!

나는 처음엔 사울이라 불리워진 그리스도의 적이요 교회의 핍박자였다. 두번째 생애에서 나는 바울이라 불리워진 그리스도를 위한 개혁 운동자요 교회의 설립자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는 새로운 개종자를 만들고 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를 돌아가며 나의 모든 영육을 다해 다음과 같은 억누를 수 없는 내적인 주장을 품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내게 학가 있을찌어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니라"

이십세기 성도들이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어떻게 그처럼 미온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을 나는 안다. 복음이란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다. 만약 거짓이라면 그것은 끔찍한 거짓말로 들어나서 박멸되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보상하여 주며 변형시키는 힘에 응답할 때 까지 국내에서 수행되며 국외에서 권고되지 않으면 안된

다. 그것이 인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망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주는 하나님 마음의 가장 높은 계시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중립적이고 냉담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독교인 성품에 반대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첫 세기에 기독교를 본 태도이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지니고 있는 태도이다.

처음에 나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였다. 헌신적인 종교 가정에서 자라 당시의 유명한 선생인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교육 받고 내 자신 선생이 되려고 하던 나는 유대인의 믿음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였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라고 부르는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개념은 내게 있어선 웃을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존경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결스러운 태도였다. 만약 이처럼 조잡한 미신이 헌명한 사람들에 의해 일소에 부쳐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박멸되어야 했다. 나보다 누가 더 이운동을 지도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므로 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찬성하였고 돌을 던질 때 함께 있었다. 사실 그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하고 기도하였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피흘리는 그의 몸에 돌을 던지는 살인자들의 웃을 말아서 보관해 준 것은 나였다. 기독교인들이 놀란 양들처럼 주위에 있는 시골로 도망치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도록 직접 인도한 자는 나였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그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띄우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마일이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들의 뒤를 추적했다.

그러나 나는 다메섹 까지 결코 가지 못했다. 즉 나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바토 성 밖에서 예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증오하고 부활을 비웃으며 교회를 허물었던 바이지만 나를 땅바닥에 쓸어트렸다. 이것은 내가 열구리에 차고 있는 것과 같은 칼의 힘으로가 아니요 그의 밝은 영광의 광채로였으며, 보복이나 분노에 의함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나를 쫓아버리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섬기도록 부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내가 눈이 부셔 보지 못할 정도로 내 주위를 비추었던 빛뒤에서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분쟁을 들어냈고 나의 모든 긴장을 풀어 주었다. 기독교인 학살은 내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본래 살인자가 아니었다. 순간 나는 이와같은 나의 양심을 아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오리까?"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한 것이 내가 개종하게 된 동기로 경험담이다. 극적이라고? 그렇다. 돌변적이라고? 그렇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당신의 잠재적인 경험을 멀리 버리지 말라.

당신에게 간증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나의 개종에 관한 한가지 일은 모든 것이 곧 평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에게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오리까?"하고 말했다 때 내가 받은 오직 하나의 응답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성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계시도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사흘동안 보지

못했으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 사흘 후에 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친절한 기독교인을 사귀게 되었다. 그의 기도로 나는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의 손에 나는 침례 받았다. 그는 "사울 형제여"하고 나를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어 내가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오리까?"하는 나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네가 보고 들은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찌니라"

그의 말씀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는 전파할 준비를 하지 못했었다. 나는 다메섹의 회당에서 나의 개종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매우 성이났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대로 내게 보복하려 하였다. 나는 밤중에 성에서 광주리에 담겨 달아내리어져서 도망치게 되었다. 나는 아라비아로 떠났다. 삼년동안, 나는 명상과 기도와 공리를 하며 사막에 있었고 내게 일어났던 일의 의미와 그 밖에도 그리스도 탄생의 중요성, 그의 돌아가심, 그리고 그의 부활에 관한 것을 마음 속에 풀어보고 있었다.

광야에서 이렇게 조용한 3년을 보낸후 까지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용기를 갖지 못했다. 첫째 그들은 나를 불신하였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참된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회원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진실을 믿고, 사도들과 다른 성원들에게 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시켰다. 그리하여 나는 어느정도 허락을 받았으며 내가 다메섹에 있었던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 나의 형제이며 동료 사도인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를 돌구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때도"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자가 으르릉 거리는 것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웅변가이며 적극적이고 부지런 하였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평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밤새의 일이 아니었다. 나의 개종은 돌발적인 것이었으나 선교사가 되고 유능한 선교사가 된것은 점차적인 것이었으며 내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지닌 여러날의 낮과 밤을 포함하고 또 불신과 반대에 직면했을 때의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

당신을 위한 교훈은 고무와 불굴의 정신이다. 모든 구름이나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개종의 햇빛을 바라지는 말라. 당신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인도에 관한 율법은 내게 있어서의 그것과 똑같다: "내일의 계시는 오늘의 순종 결과로 수반된다" 그 다음엔 내일의 너무 열망하지 말라 오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 내일이 동트기를 바라지 말라.

오늘을 주목하라!

오늘이 곧 인생의 생활이기 때문이니라

그 짧은 과정 속에 그대 존재의

모든 변화와 실재가 있나니;

성장의 행복과

행동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기쁨이 있노라

어제는 이미 하나의 꿈이요

내일은 시험이니라

그러나 값지게 생활한 오늘은

행복한 꿈인 어제를 이루고,

희망의 시험인 모든 내일을 이루니라

그러니 오늘을 잘 주목하라.

나의 개종에 관한 또다른 일은 내가 유혹에서 구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갈등을 강렬하게 만든 감각이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로마인들에게 준 서함의 제 7장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에 나의 죄는 전에 보다 더욱 나타났다. 이것은 전에보다 새로운 양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작은 죄라도 타협할 수 없으며 그대로는 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소망뿐만 아니라 나의 언어와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함을 알았다. 나는 여러번 실패하였다. 나는 내가 증오했던 악을 행하였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선이 부족했으나 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전보다 더욱 진실하게 더욱 열심히 도덕적인 승리를 위하여 분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고무적인 말을 새로운 개종자와 새로운 교회 회원에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므로서 곧 유혹이 살아가기를 바라지 말라. 결정적인 싸움은 승리하였으나 싸움 그 자체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개종한 후에도 그전과 같이 악에 대한 열렬한 투쟁이 필요하며 이것은 영적인 건강의 표적이다. 당신의 영육안에 있는 하나의 죄를 깨달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양심이 잠자고 있다는 표적이며 죄이 죽은 것은 아닌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말로 한다면 당신이 싸움할 필요성을 느끼고 당신이 싸움을 하고 있는한 당신은 영적으로 분명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다른 한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일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내게 시험이나 고통을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나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찌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을 기뻐하라"

특히 나는 "고통의 원인"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나의 둘째번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매우 마음에 근심하였다. 이러한 고난을 나는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로 간주하였다. 만약 내가 그 병을 치료하였다면 나는 주님의 선교사로서 더욱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세번이나 주님에게 나의 병을 고쳐 주실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주님은 그것을 해주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의 요구를 거부하셨으나 내 기도 에 응답해 주셨다. 참된 기도 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 하나로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즉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충분한 힘을 주시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그

는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셨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하니 이는 내 힘이 약자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한가지 더 내가 당신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인 경험이 또한 개종자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배운 구원은 경험을 쌓아 두는 것이 아니요 나누어 갖는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과 투옥된 일을 요약할 때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다섯번이나 나는 유대인 손에서 40타형을 받았다. 세번이나 나는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번은 돌에 맞았고 세번 파선을 당했으며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 표류하였고, 자주 갖는 여행에서 강이나, 도적이거나,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성내에서나 광야에서나, 바다에서 많은 위험에 부딪혔다. 나는 잠을 못자고 여러날 밤을 보냈다. 나는 굶주림과 갈증과 추위와 헐벗음을 알았다. 나는 글자 그대로 내 몸에 주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표시하고 다녔다.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를 혼장을 보아 평하시지 아니할 것이요 상처를 보아 평가하시리라" 하였다. 당신은 어떠한 상처들을 보일 것인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뜻하는 것은 말일성도토서의 지상생활과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위대한 임무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가 한번 더 지상에 살기를 바란다. 그 때에 나는 전혀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때에 나는 옛날의 이야기와 예수에 관한 옛 이야기와 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그의 사랑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렁시킨 충만했던 희생과, 어떻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의 세대를 볼 때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 대중들을 볼 때 내가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서 바칠 생명은 단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7페이지에서 계속)

님 앞에 조롱거리가 되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되나니 회개는 정죄받은 자와 율법을 어겨 저주를 받아야 할 자를 위한 것임이니라.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게되며 계명을 성취하게 되며 계명을 성취함은 죄사함을 가져오느니라. 죄사함은 은유와 마음의 겹손을 가져오며 은유하고 마음의 겹손함으로 성신이 임하시나니 성신 곧 위안자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사람의 가슴속에 가득히 채우시느니라. 이 완전한 사랑은 열심히 기도하여 끝까지 참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까지 사람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느니라"

(모로나이서 8: 22-26)

한국 성도들에게.

— 계일 이. 카. 선교부장 —

선교부를 관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안되며 선교부를 발족시키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더욱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카자매와 나는 두굽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 보건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와 선교사 계획을 얼마만큼이나 결속시켜 놓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한국 선교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동안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생애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칠까 이야기할 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해마다 자랄 때 한국 성도의 신앙과 사랑, 헌신과 힘에 대한 끊임없는 생생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저러한 추억이 해가 감에 따라 더욱 아름답게 되새겨 질 것이고 또 언제 어느곳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애석하게 생각함은 인정의 자엽지사가 아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백성과 우리들을 묶어 놓는 많은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엔가는 또다시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라도.

우리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우리가 가진 간증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떠나려 합니다. 또한 바라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한국 선교부와 한국 성도들을 우리의 기도속에서 잊지 않
(23 페이지에 계속)

"쇼일 윌딩 스미스, 12사도정원회 회장
한국성도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낸다.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in Korea.
If we will follow the
Spirit of Christ we will
never go astray.

For behold, the Spirit of Christ
is given to every man, that
he may know good from evil;
wherefore, I show unto you
the way to judge. For every
thing which inviteth to do good,
and to persuade to believe
in Christ, is sent forth
by the power and gift of Christ;
wherefore ye may know with
a perfect knowledge it is of
God. — Moroni 7: 16.

Joseph Fielding Smith

요셉 윌딩 스미스 12사도회 회장 멧세이지

한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나니 저가 선과 악을 알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나니 이는 선을 행하도록 권한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보내어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한 지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찌니라" 모로나이서 7:16

- 요셉 윌딩 스미스 -

※ 8월 2일 내한하신 팔머 선교부장님 편으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 _ * _ * _ * _ * _ * _ * _

한국 지방대회 성황리에 끝나다"

신임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님을 모시고 처음가는 지방 대회는 8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청운동 선교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팔머 선교부장님과 팔머 자매님의 훌륭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감을 불어 일으켰으며 지방부장단의 말씀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지방대회는 오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많은 회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사회의 격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석구"형제님이 참석하여 앞으로 교회에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다.



신임 선교부장 가족 내한

신임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는 지난 8월 2일 무사히 입국하셨다. 팔머 선교부장님은 일찌기 6.25 한국 동란 당시 유엔군의 군목으로 한국에 계실 때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셨다. 그 분의 전도로 개종한 형제와 자매들은 지금도 활동적이다. 팔머 선교부장님은 브리감엄 대학교의 역사학과 종교학의 교수로서 그 분의 동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하나님 의 권능과 더불어 한국 선교부 발전에 기여할바를 것으로 믿어 의심할 바 없다.

사진 설명 — 팔머 선교부장 가족

(좌로부터 드와이트, 선교부장, 팔머 자매, 제임스, 제니트)

여러분의 질문.

해답자: 죠셉 험빙 스미스

12사도 정원회 회장

질 문:

비 회원에게 복음을 가르치다가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부딪혔습니다. 이 친구는 모토나이서 제 8장 22-23절 "그리스도의 자비와 성령의 힘을 부인하며 죽을 일을 의지하며" 어린아이를 침례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니 이는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며" 법없는 모든자와" 같음이니라는 말씀은 알마서 34장 32-34에 기록된 애무렛의 말과 모순된 것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애무렛이 말하기를 "보라 험세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니 보라 험세의 날은 각자가 말은바 일을 수행하기 위한 날이니라.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에게는 많은 증인이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회개의 날을 죽음이 이르는 날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마지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험세 이후에 보라 우리가 험세에 있을 동안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느니라. 너희가 저 두려운 겹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 하나님께 돌아 오리라 말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말할 수 없나니 이같이 말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험세를 벗어 나는 그 때에 너희 육체를 소유하는 그 영체가 영원한 그 세상에서 너희 육체를 소유할 능력을 가지게 될것임이니라.

해 답:

우리 앞에 모든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의 문제에 관하여 잘못된 관념이나 틀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비평한다거나 간단하고도 쉬운 일에 만족해 버린다는 것은 각개인에게 무한한 해를 끼치게 된다. 이 사실은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보러갔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장님중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잡고 코끼리는 마치 부채와 같다고 주장했고 다른이는 꼬리를 잡고 코끼리는 줄과 같다고 주장하고 다른이는 다리를 만져보고 나무기둥과 같다고 주장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점에 대해 각기 다른 개념들을 갖게 되었다. 각자는 자기가 발견한 것에 만족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경전은 모든 죄인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칙례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속죄에 근거를 둔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칙례는 세상의 구세주가 마땅하신 위대한 속죄에 근거를 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교리이다. 또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자와 완전히 구별할 줄 아는 자와 같이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자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명령이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란 선악을 구별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 보지도 못했고 복음의 원칙을 알지도 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의 계획을 배운자가 받게 될것과 똑같은 형벌은 결코 받지 아니한다. 주께서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며 어린아이 때에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점에 관한 주

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나는 교리와 성약 29장 46-50절을 인용 하겠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린아이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세상의 태초부터 구속되어 있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죄지을 수 없느니라. 이는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를 유혹할 힘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나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큰일이 어린아이의 부모의 손에 매여 있도록 하였음이니라.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식을 가진자들에게 회개하기를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더냐 분별력이 없는 자는 기록된대로 처리되리라. 이번에는 이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에뮤렉은 진리를 알지 못했고 가증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한 때 교회의 열성있는 회원이었으나 악행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에뮤렉은 그들에게 돌아와 처음과 같은 일을 행하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몰몬은 이 교리에 관해서 자기 아들 모로나이에게 쓴 글 가운데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성숙했으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보라 모든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또 율법밖에 있는 자도 모두 그러하니 구속의 능력이 율법이 없는 모든 자에게 미치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죄되지 아니한 자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는 회개할 수 없고 그러한 자에게 침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함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고 죽은 행위에 의지함은 하나
(10 페이지에 계속)

환 영 사

1965년 8월

김 도 필 자매

제 2대 선교부장 부처를 맞으며.

먼저 이와같이 훌륭하신 제 이대 선교부장을 이 한국에 보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선교부장님을 위시하여 가족들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때는 6.25 동란이 일어나 수도가 부산에 옮겨졌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선교부장님은 군목의 자격으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는 여가를 만들어 우리 한국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는 몇몇 미국 군인과 자매들을 이끌고 종군목사라기 보다는 한국 민족을 위하여 보내진 선교사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한 전도사업에 부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이끌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임시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울갠을 사오시고 찬송가를 번역하며 한편 운동기구를 마련해 주시는 등 여러가지로 힘써 주셨습니다.

과도치는 부산바다에서 한 사람의 칩테의식을 보려고 밤을 세워가면서 멀리 판문점에서 달려오시던 일, 이러한 성의와 열의로서 복음의 씨를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당시 약 20명의 회원과 몇명의 구도자가 있었을 뿐 아직도 복음의 씨가 널리 퍼지기도 전에 분명한 지도자 한분 없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전미군이 부산을 떠나게 되었음)

다같이 하늘 왕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며 눈물 흘리며 떠나실

때 우리도 다같이 이별을 애석해 했습니다. 마치 목자없는 양과 같이 우리는 외토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때 지도자 층에서는 미국 군인들만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오직 이 선교부장님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끝까지 열매맺을 것을 믿었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귀국후 조셉 윌딩 스미스 사도를 설득시켜 그 분께서 친히 한국에 오서 헌납하신후 정식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어 처음으로 파우어 장노, 데른 장노, 카 장노(초대 선교부장님)님 등 계속 여러 선교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등 7개지부가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을 보실 때 무한히 기뻐하실 줄 알며 이들 중에는 선교부장 자신이 칩테주시고 함께하던 초기의 회원들이 아직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떠나시기에 앞서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이 뿌려진 씨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소서. 이 열매가 온 한국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곡히 기도드린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본국에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특히 동양의 종교와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젠가 반드시 영광된 임무를 띠고 한국에 오실날이 있으리라 믿었으며 열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히 그 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팔머자매 역시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신다는 소식은 가슴을 뜨겁게 했으며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것이 생소한 한국 땅에서 큰일 적은일,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목마르고 메마른 이 백성, 어둠에서 해메는 이 백의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력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이 성심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와 고락을 함께 나누시고 잘못된 일은 질책해 주시고 진심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제 이대 선교부장님과 그의 가족을 마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다시금 무릎 꿇고 머리숙여 감사 드리웁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욱하사 이 땅,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며 선교부장님과 그의 가족에게 건강과 축복주시옵기 비옵나이다.

아 멘.



"한 나무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숲은 많은 생물들이 서로 도와서 번성하여진 복잡한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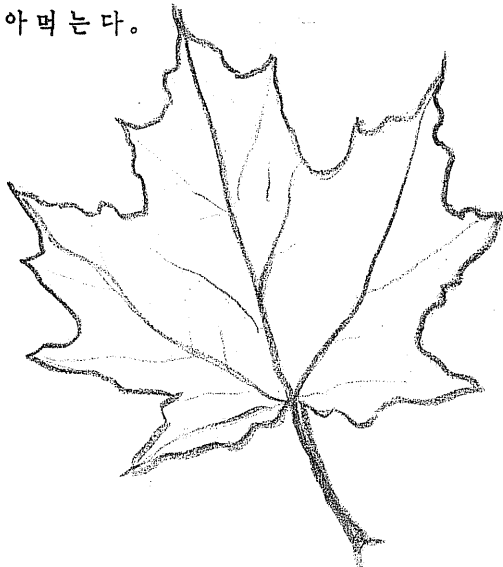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입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
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
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
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
로 같이 하며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

(고린도 전서 12장)



새들은 나무가 많은 숲에서 벌레들을 먹이로 잡아먹고 살므로 숲의 번성에 기여한다. 만일 새들이 나무의 벌레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숲은 멸망해 버릴 것이다. 올빼미나 매는 두꺼비와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있는 숲에 생명을 준다. 나무나 넝쿨이나 관목에 달려서 초록 잎사귀는 먹이를 만든다. 크거나 작거나 넓거나 뾰족하거나 어떤 식물에서이건 어느 식물의 잎사귀이건 스스로의 성장과 영양을 위해서 먹이를 만든다. 이렇게 성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동물들이 따먹으므로 해서 그 씨가 옮겨져 어린 싹이 남게 되어 그 종자가 퍼뜨려진다. 잎사귀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먹이를 제공해 준다.

이상 자연 현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서로 희생하고 도움을 받게 마련이다. 한 가정에서나 단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니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가며 살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되어 나갈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세상의 관계를 잘 인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는데 있어서도 각자가 맡은바 직책에 충실함으로서 교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말씀과 같이 어느 하나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교리에 있어서 한사람 한 사람의 발전이 지부의 발전, 지방부의 발전 나아가서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위에 보다 빨리 이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1페이지에서 계속)

고 있을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쓰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상호 부조회 공과

신 학

교리와 성약

1965-66년도 제 공과를 위한 총 연습

로이 다불유. 독시 장노 씸

교리와 성약의 힘있고 유익한 장들은 1832년 초에 받은 것처럼 받듯이 시대적인 순서대로 나타지는 않는다. 88장에서부터 92장까지에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될 많은 위대한 진리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뗏세이지들에 제공되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계시를 피상적으로만 음미한다는 것은 결코 완전히 바람직한 경험이 될 수 없다. 이해 되어야 할 계시들은 그 계시의 중심이념에 관한 깊은 연구와 깊은 음미를 요구한다. 88장에 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금년에 불과 다섯과가 제공되었지만은 아직도 "감람나무 잎"—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예언을 가르켜 이렇게 명명했다.—에 계시된 여러개의 놀라운 진리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 많이 있다.

"감람나무 잎"은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평화의 뗏세이지이다. 이 다섯과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이 계시를 통하여 주님이 그의 학생들에게 확평을 전하는(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확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대한 것이다. 세계의 상태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도덕적으로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편에서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확평을 받을 필요가 절실히 있다는 사실은 주장되어야 할 일이다. 88장은 우주의 섭리중에서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것,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의 계획을 알브로서 받는 만족, 부활과 부활을 통하여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귄 수 있다는 확신, 우리 모두가 거할 부활된 세계에서 의 영광들(해, 달, 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통 율법으로 다스려 진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증에 확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런 모든 관념들은 성도들이 지식을 가지므로써 고통스런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인간을 고양하며 고상하게 하는 관념들과 풍요한 내용이 담긴 다른 가치있는 진리들이 88장 전체에 산재해 있다. 이 계시가 또 하나 기여하는 사실은 혼계를 따른다면 흡족함을 주는 확평이 갖든 끝없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증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계시 중의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다(89장) 이 계시의 예언적인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지혜의 말씀을 다룰 두 곡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의 계명인가? 89장에는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이 준수해 주기를 요망하는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준수함은 어떻게 말일성도들의 심령에 도움을 주는가?

90장은 교회 조직의 질서에 있어서의 신권의 "열쇠"의 중요성과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지키기 위한 우리 개인적인 순종의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장은 말일(오늘의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올바른 방향에 필요 불가결한 지시로서 가득차 있다.

91장은 예언자(요셉 스미스)에게 구약성경에 있는 경위전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으며 92장은 후레데릭 지. 윌리엄스를 공동 체제에 입회 하도록 수락해야 한다는 계시와 계명이다.

1965-66년에 걸친 일년의 신학 공과는 다음과 같은 주제와

목적으로 제시된다.

65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힘(교리와 성약 88:1-14) 목적: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활동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66과— 지구와 인간(교리와 성약 88: 14-35, 97-104) 목적:

인간의 부활과 지구의 운명에 대하여 배우는 것.

67과— 율법, 인간 그리고 우주(교리와 성약 88:36-75) 목적:

우주에서의 율법의 지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은 그 율법에 순종하므로써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영원히 이롭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

68과— 지식과 장래의 일 (교리와 성약 88:76-116) 목적: 선교

사로서의 준비가 중요함을 복음에서 교육의 위치, 그리고 예언된 미래 사건들에 관하여 배우는 것.

69과— 위대한 진리: 예언자들의 수업(프리와 성약 88:117-141)

목적: 88장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화평"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복음공부에 관한 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시를 받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

70과— 지혜의 말씀에 대한 서론(교리와 성약 89:1-3) 목적: 지

혜의 말씀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71과— 지혜의 말씀— 생명을 주는 계시(교리와 성약 89:4-21)

목적: 지혜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그 가르침의 적극성을 이해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각 개인에게 내리는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는 것.

72과— 대관장회— 왕국의 열쇠(교리와 성약90, 91, 92)

목적: 복음 계획중에 나타난 신권의 열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

방문 교사 멧세이지

고리와 성약에 의거한 생활의 진리

1965-66간의 멧세이지의 복습

크리스타인 에이취. 로빈슨

1965-66년도에 있을 8개의 방문교사 멧세이지는 고리와 성약 88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감람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 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예언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중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88장에 기록된 계시는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할 수 있으며 복음을 간직하는 보다 가치있는 그릇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성도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고리와 성약의 이 장은 생활방법은 진리이며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진리는 우리가 확평과 기쁨과 성공과 승업을 찾게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현재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지침으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금년도의 멧세이지가 강조하고 논의하는 몇몇 진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하나님 계명의 근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훈계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그 외의 다른 모든 기독교도로서의 덕성이 행

동에 나타난다.

그 멧세이지는 근면의 중요성, 기도의 놀라운 힘, 우리의 재능과 재질을 발전시킬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해의 멧세이지는 또한 자유의 본질과 죄에 의하여 묶여지는 속박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멧세이지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일찌기 주님을 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방문교사 멧세이지와 그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멧세이지 65 —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도록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노라"(교리와 성약 88장 77)

목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멧세이지 66 — "너희가 쇠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88장 126절) 목적: 진지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멧세이지 67 —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투기하지 말며, 복음이 요구하는대로 서로 주기를 배우라"(교성 88장 123) 목적: 사랑은 풍성한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멧세이지 68 — "계으르지 말라"(교성 88장 124) 목적: 건설적이고 근면한 일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는 목적이 있고 만족할만한 생활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멧세이지 69 — "너희는 자유 가운데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교성 88장 86) 목적: 자유의 본질과 그것의 의로운 율법에 의 의존성을 기술하는 것.

멧세이지 70 — "서로의 약점을 찾지 말라" (교성 88장 124) 목적: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에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그들을 고무하고 앙양하여 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멧세이지 71: 은사가 그에게 주어진다 할찌라도 그가 그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교성 88장 33) 목적: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드리고 발전시킬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멧세이지 72 — "나를 일찌기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며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 (교성 88장 33) 목적: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주님을 구하고 찾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39페이지에서 계속)

고통스런 때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질을 음미해 보는 것.

제 5과 — 1966년 3월을 위하여: 삶에 있어서의 고통이 차지하는 위치. 제 2부(교재 372-379, 386-396, 405-419페이지) 목적: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어떻게 우리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제 6과 — 1966년 4월을 위하여: 죽음에 대하여 제 1부(교재 420-439, 445-447, 473-482 페이지) 목적: 서로 다른 생활 상태에 비추어 보아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

제 7과 — 1966년 5월을 위하여: 죽음에 직면하여 제 2부(교재 443-444, 448-472 페이지) 목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써 아니라 확고한 확신으로 내다 볼 수 있게 돕는 것.

봉사의 모임

"가정에서의 복음에 대한 교육"

알버트 에이취. 크리스텐센

제 8과 전 가족 회의.

목적: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 가족이 모여 의논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한 것.

서론:

가정생활을 전 가족에게 원활하고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들은 가족에게 중요한 여러가지 일에 대해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전 가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들은 집의 설비, 기구를 사용하는 일, 전 식구가 방학동안 어디서 지내야 되나, 가족의 현명한 가계지출 방법, 교회 선교부나 대학에 관한 그러한 문제는 각 가족 개인들이 목적하는 것들이 다 전 가족을 참작해서 일반적인 예산과 시간을 짜야 된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가족에 의해 세워진 목표들이 성취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는 곤란에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여 이 공과에서 토의될 것이다.

가족 단결.

가정의 밤 모임 안내서는 모든 식구에게 계통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게끔 마련해 준다. 매주 이 시간에 이어 사교적인 오락 활동을 가질 수 있다. 가정생활에는 가족에게 중대하고도 흥미있는 면도 있다 고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참작해서 가정의 밤 모임 순서를 융통성있게 계획해도 된다. 다음의 말들은 가정의 밤 모임 안내서 서론에 나타난다. 7페이지: "...이 안내서는 오

직 46과로 되어 있다. 고로 최소한 6주간은 부과적으로 융통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가족의 특별한 요구와 원하는데 따라서 이 6주간 동안 융통성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 다른 부모들은 그들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특별활동을 만들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융통성은 특히 가정에게 관련된 일반적이거나 또는 특수한 문제나 상태에 관해서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훈계할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준다. 더군다나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가정의 밤 모임의 일부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바쳐져야 된다.

가치있는 훈련.

우리 가족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가장 중대한 것의 하나는 돈의 지출을 조절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몇몇 부모들은 가족의 재산에 대해 전 가족이 함께 생각하는 것을 꺼려할지도 모른다. 다른 부모들은 재정적인 상태나 또 정확한 가족수입의 지식 없이도 자녀들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데 가치있게 훈련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녀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가족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 현명하게 돈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므로써 아이들도 (1) 십일조(그리고 다른 교회 헌납, (2) 저축의 중요성(선교부와 대학을 위해서), (3)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써 오는 축복(가난한 가족들과 가치있는 봉사 단체에게)

가족 가운데 대학이나 선교사업과 같이 그러한 목표에 대해 들을만한 위치에 도달치 못한 어린 회원들은, 대신 부모들과 좀 더 나이 먹은 식구들이 이 중요한 목표들 호의 하는 것을 들으므로써 많은 것을 배운다.

가족 휴가.

어디에서 하기 휴가들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린이가 자라서 이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들이 준비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가족 토론회로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부모들은 미리 적절한 여행지를 두곳을 생각해 놓고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선택한 것을 말한다. 빌(10세)은 뒤에 가족 여름 휴가에 대해서 친구와 얘기한다.

친구: 너는 휴가동안 엘토우스톤 공원에 갔었니?

빌: 아니, 우린 헨리 아저씨를 보러 캡사스토 갔었어.

친구: 난 니가 엘토우스톤으로 가고 싶어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빌: 그랬었어. 내 누나들도 그랬는걸, 우린 분수와 곰들을 보고 싶어했었어.

친구: 그런데 왜 안 갔니?

빌리: 너도 알다시피 우린 가족의 밤 모임에서 그것을 토의 했어. 아빠는 엘토우스톤과 캡사스에 갈려면 시간도 그렇고 돈도 충분치 않대. 그래서 우린 더 나은 곳을 선택하기로 했어. 내 누이 바바라는 분수는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지만 헨리 아저씨와 농장은 그렇지 않을거라고 말했어, 그래 우린 캡사스토 정했지 뭐.

친구: 바바라가 원한 것은 전 가족을 위해서였니?

빌: 아니야, 그것은 제 생각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투표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녀와 같은 생각을 했어. 그래 우린 캡사스토 갔어. 엄만 아마 내년에 엘토우스톤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가족 의논에 대한 응답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기꺼이 협조하는 것 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참조하는 것) 또 그것은 이들 가족의 장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성숙해 가는데 중요한 단계, 즉 성인 생활이 행복하도록 돕는 요소들을 이 아이들은 습득하고 있다)

어디서 가족은 규칙을 만드나.

많은 부모들은 가족의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데 아이들의 협조를 구한다. 아이들은 그들이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보다는 그들이 동의한 것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더 크게 느낀다고 부모들은 믿는다. 고로 그들은 이 규칙들을 정하기 위해 안내된 정기적인 가족 토론 시간을 이용한다. 가족차를 사용키 위해 항상 부모와 의논하는 온순한 가족 분위기를 나타내는 다음의 말을 참작해 보십시오.

토드니: 아바, 저 이번 주말에 하루밤만 차를 사용했으면 하는데요. 가족 스케줄을 보시고 좋은 때를 골라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물어 볼께. 내가 아는 한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양일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스테펜 과 마-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

마-지: (14세) 엄마, 스테펜이 베틀와 나를 토드쇼에 데리고 가도록 수요일 밤 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글썄 괜찮을 것 같은데, 허지만 너 아버지가 혹시 수요일 차가 필요하신지 여쭙어 봤니? 또 스테펜이 너희들을 데리고 갈 시간이 있는지 물어 봤니?

스테반: 나 수요일 밤 농구 연습하러 가 누가 차를 사용하려고 그래?

이런 충돌점이 가족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더 만족스럽게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가족의 기구 사용.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생활은 모든 가족에서 필요한 기구를 요구하게 한다. 식구들에 의해 이 물건들을 제멋대로 사용하므로서 다음과 같은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다.

1. 마-지는 온 저녁 전화를 사용해야 하나? 그녀는 좀 빨리 끊을 수 없을까?
2. 오늘밤 토드니는 어떻게 차를 탔나? 그는 말도없이 차를 몰고 갔어.
3. 케니가 좋아한다고 우리까지 쪽 텔레비에서 서부영화만 봐야 하나?
4. 난 거실에선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가 없어. 보브는 왜 자기 침실에서 나팔 연습을 못하노?

이런 불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분위기를 다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푸는데 앞에 말한 가족 회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옹호하는 몇몇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물기를 좋아한다. 너희들(아이들)은 우리와 의논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그들은 가끔 별달리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젊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볍게 하려고 가져올지도 모른다. 현명한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도록 잘 도울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좀더 생각하게 다룰 것이다.

메리(11세) "난 우리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자넬이 청소 당번이 되면 내 옷장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할지 잘 모르면 그냥 쏙셔 박거든, 난 정말 이게 싫어" 즉 이 말은 듣는 어머니에게 이 각각 두 소녀가 무슨 특성을 갖고 있

다고 지적하는가?(자 - 녀의 경우, 그저 책임만 없애려는 경향이 있고, 메리는 깨끗이 하려는 욕구가 풍부. 그러나 아마 남을 원망하는 경향도 농후한 것 같다)

소년(8세) "난 얼마가 그렇게 바쁘지 않기를 바래 여러번 난 엄마에게 물어볼려고 하는데 엄마 항상 나와 관계가 먼것 같애. 마치 질문을 들고 싶지 않은것 처럼 엄마 마음이 나에게서 먼것 같이 생각돼.

그러한 말이 어떻게 이 조그만 소년의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그녀는 그녀의 분주함을 돌이켜 보고 어린아들과 있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여야 한다)

부모들은 개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가족 상담시기를 지혜있게 사용키 위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한 아이가 바르게 인도될 필요를 느낀다면 그를 도웁고 그의 발전을 위해 사려깊은 사람을 베풀어 주는 것이며 이를 개인적으로 공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가족이 그의 잘못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알린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훌륭한 행동 가운데도 사소한 잘못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에 대해 가책을 느낀다. 만일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인하고 깨닫는다면 이러한 것은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토론은 특히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친절하고 교훈적인 훈계로써 시간을 충당해야 한다.

이와같은 토론은 어린 소년이 좀 나이들은 어른이 가까이 올 때 이러선다든가, 어머니와 누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 준다든가, 또 소녀들은 특별히 베풀어 주는 예의에 대해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예의바른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요 약

정기적으로 함께 가족 상담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실천의 결과로서 자기 아이들이나 또는 다른 가족 사람들이 보다 훌륭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아이들은 가족 토론회의 회원이 되므로써 그 존재를 중대하게 느끼며 그들의 의견은 존중되고 그들의 투표에 한목 끼게 된다. 그들이 찬동할 때 또 불찬성일 때 이것은 다 고려된다. 만약 식구들이 친절하고 이기적이 아닐 때 그들이 다른 식구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를 깨닫게 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한 토론은 모든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토론은 어머니에게 무슨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나? (그 토론은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분야에서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게 될 표준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현재의 가정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만약 현재 가정이 행복하다면 이 가족 토론은 장래의 행복한 가정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토론을 위하여 이 공과에 나타나는 질문들에 크라스 토론 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다른 의문점들을 합친다.

가정이 할것을 위하여.

지시된 토론이 적합한 당신 가정의 상태에 관하여 당신의 남편과 논의하시요. 가정에서 가족 상담과 토론 시간을 가치세요. (만약 당신이 아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었다면 그것의 가치가 당신의 가정에서 어떠한지를 평가해 보시요.

문 학

문학에 나타난 개인과 인간의 가치

교재: 유명한 책 — 문학 선집.

제 1권 개인과 인간의 가치

브트스 비 클라크

공저

로버트 케이. 토마스

1965-66년도 공과 연습.

브트스 비 클라크 장로 씀.

상호부조회 문학공과에 새로운 계획이 이 한해 동안 기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이 새 계획은 세가지 일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첫째 작자의 생활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라기 보다는 문학 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렇게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토론을 열렬하게 고무하며 문학이 부여할 수 있는 생활의 가치와 생활에서의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 교환을 열렬하게 할 수 있게 고무한다. 둘째 먼저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볼 때 이 상호부조회는 특히 교회의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한권의 문학서적을 마련해 놓는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에서 어떤 개인에게 선출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행이 그 책은 적절한 가격(\$2.95)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많은 지부에서는 이 책을 사용함으로 보다 훌륭한 성과를 얻게된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셋째 이 새로운 계획은 우리의 문화 유산의 이상과 우리 종교 이상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주면서 문학과 복음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총명한 복음을 얻기 위하여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은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들은 세상의 양서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이 부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것을 장려받는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문학은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인 가치를 옹호하며 한편 죄악과 물질주의와 저속함과 모든 그릇된 것을 저항하고 폭로하기도 한다. 1965-66년도 문학 프로그램은 작년도 프로그램의 계속이므로 같은 책의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각 지방부와 지부의 문학 교사들이 그들에게 맞는 가장 유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달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매들은 그들이 오늘날 까지 읽는 경험이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여 서로 호통할 것이 장려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각자의 재능이나 통찰력 때문만 아니라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평가하고 열망을 품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다른 한 해의 문학 과정에 접근할 때, 우리는 위대한 문학이 주는 벅찬 과업과 그 보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재고한다는 것은 훌륭하다. 아마도 이것에 관하여는 몰티머 아들러가 쓴 훌륭한 수필에서 더 잘 기술한 곳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책들은 읽기 쉬운게 아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처음 한번 읽고 잘 그것들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되며 또한 여러번 읽은 후에 완전히 마스터 하리라고 기대해서도 안된다. 위대한 책이란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종종 얘기해 왔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그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것만이 우리를 고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해의 연구에 접근할 때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지 절대로 마지막일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독서는 문을 닫는게 아니라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책을 골라서 읽고 난 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다만 삶에 대한 도전과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좀더 잘 준비된 충분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상호부조회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그것들을 즐기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점이와 지혜를 서로 나눌 때에 충분히 성공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부모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분석하는 약간의 기술을 더하여 독서열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가족 그룹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다.

1965-66년도 문학공과의 주제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 1과 — 1965년 10월을 위하여: 선과 악의 대립.

제 1부(교재 281-328페이지) 목적: 악을 이기고 선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투쟁과 문학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제 2과 — 1965년 11월을 위하여: 선과 악의 대립 제 2부(교재 329-360페이지. 보조자료는 246-280페이지 까지) 목적: 선과 악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제 3과 — 1966년 1월을 위하여: 경험을 통한 성장(교재 123-123과 176-197페이지) 목적: 문학은 우리가 때때로 문학을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변화를 받지 않기 위하여 배움을 거부하는 사실을 어떻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제 4과 — 1966년 2월을 위하여: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위치 제 1부(교재 363-371, 380-385, 397-404페이지) 비통의 본질과
(29 페이지에 계속)

7월의 칩러자 명단

부산지부

하	재	청
김	관	욱
허	경	성
신	홍	규
이	경	상

대구지부

김	황	달
김	하	업
장	문	숙
신	체	순
정	경	순
정	애	겸

성동지부

김	나	관
이	관	용
김	혜	숙
강	협	숙

청운지부

홍	승	희
---	---	---

삼정지부

조	현	숙
이	성	용

표지 설명

스펜서 다블유. 김볼 사도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宣教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淸雲支部	73-3995
三清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 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J. 팔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